

한 알의 좁쌀도 아끼고 한방울 물도 옆사람에 튀게 말라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 펴낸 철 우 스님 “있는 계율도 없애는 건, 불교 자신을 없애는 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더니, 최근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술은 발달하지만 사회는 날로 복잡해져만 가고, 생명 경시가 만연한 세태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이런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 혼란을 느끼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1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난 철우 스님(사진)은 “이런 어지러운 사회에 ‘계율’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빨리 경전에는 계율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계율은 악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이며, 훌륭한 갑옷이다. 어떤 삶이든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이끄는 충실한 안내인이다.”

#계율은 스님뿐만 아닌, 불자들도 함께 지켜야

“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조그만 불씨가 만 리 들관을 태우고 한 방울 물이 견고한 돌을 뚫는 것과 같으며, 작은 것이 많은 것이 되고 적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스님은 최근 구제역 파동을 두고 “우선 불자들이 먼저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죽은 가족을 위해 천도제만 지낸다고 해서 불자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현재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 천도제를 지내거나, 피해 가족들에게 기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불교계만큼은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고기를 먹지 못해 안달”이라며 “삼보일배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삼보일배를 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이권이 없다고 생

각하니, 다들 먼 나라 이야기처럼 구경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율은 단순히 스님들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자들 역시 계율에 대해 알고,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철우 스님은 “계율이 생겨난 이유는 개개인의 수행을 위해, 교단의 청정을 위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그리고 정법이 영원히 머무르게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며 “불자들은 마땅히 계율을 지켜야 하며, 파하더라도 바로 참회하고 다시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 불자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불자라 할 수 있으며, 교단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작은 규칙의 실천이 결국 삶의 행복

사미와 사미니가 비구, 비구니가 되려면 가장 먼저 사미십계(沙彌十戒)와 그 24가지 위(威儀)를 배우고 행해야 한다. 사미가 지키는 계율을 사미율

의요약(沙彌律儀要略)이라 하는데, 사미는 사람을 뜻하고, 율의는 법(法)을 말한다. 넓게는 부처님의 가르

침을 모두 율이라 한다. 사미는 인도의 조물신(造物神)인 범천신(梵天神)이 지은 범어(梵語)이다. 범어는 고대 인도의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말로, 풀이하면 ‘쉬고 자비하다’는 뜻이다. 나쁜 생각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세간에 볼드는 것을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인데, ‘부처님께 힘쓴다’ ‘열반을 구한다’라는 뜻도 있다.

철우 스님은 사미율에 대해, “사미율은 재가자들도 모두 읽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속의 중생들은 이러한 계율을 하나씩 다 이행하며 살기는 힘들다. 스님은 이에 대해 “다섯 가지의 기본 계율만 일상생활에서 지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섯 계율이란 첫째,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지 말라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 등이다. 특히 불살생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계율이다.

“부처님은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말씀하시길, 살생에 열 가지 죄가 있으니, 첫째는 항상 독을 품어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음이고, 둘째 중생들이 증오해 눈으로 기쁘게 보지 않음이고, 셋째 항상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생각함이고, 넷째 중생들이 두려워하기를 호랑이나 뱀 보는 것과 같음이고, 다섯째 잠들면 두렵고 깨어나고 편안하지 못함이고, 여섯째 항상 악몽에 시달려 질병이 많음이고, 일곱째 목숨이 다할 때 미친 듯 정신적으로 두렵고 신



철우 스님은 계율이 좋은 삶을 위한 인간적 장치이고, 깨달음을 향한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음이고, 여덟째 단명을 씀이고, 아홉째 몸이 무너져 목숨을 마칠 때에는 지옥에 떨어짐이고, 열째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단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은 불교의 윤리이며 도덕이자 부처님의 교육관이다. 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스님은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있던 계율도 없애려고 한다”며 “있는 불교 자신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생활 속의 작은 규칙들을 지키면 마

음이 평온해지고, 결국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계율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야 할 규범이자, 귀한 삶의 지혜”라며 “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것인 만큼 지계를 통한 청정교단 회복에 모든 불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율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적 장치

출간한 이래, 반평생을 계율 연구에만 몰두해온

철우 스님이 최근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를 출간했다. 스님은 딱딱하고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계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불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책은 철우 스님이 5년 동안 법보신문을 통해 연재한 ‘계율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스님이 처음 율장을 만난 것은 1967년 해인총림 동안거 때였다. 당시엔 열심히 공부하려 해도 책이 없어 400자 원고지를 인쇄해 배워야 할 것들을 한 자 한 자 옮겨가며 공부를 했다. 책을 한 번 빌려보기 위해서는 3000배를 해야 했고,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책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기도했다.

그런 염원이 훗날 70권의 율장전서로 완성됐고, 책은 각 분사와 관심 있는 이들에게 배포됐다. 2009년 10월에는 한 권이 1000페이지가 넘는 4권이 한 질로 된 현토 번역 사본을 60권을 완간하기도 했다. 동시에 ‘율학 연구회’라는 모임도 만들어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스님은 1996년 파계사 영산율원을 개원하고 다시 율주 소임을 내려놓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계율’이라는 두 글자를 알려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스님은 “한 알의 좁쌀도 아끼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옆 사람에게 튀게 하지 말라”는 등 계율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나를 사람들은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수행자들에게 계율은 깨우침을 향한 첫걸음을 거둬야 한다.

“계율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적인 장치이며, 깨달음을 향한 아름다운 시작”이라 말하는 스님의 따듯한 질타와 간절한 당부가 책 속 곳곳에 녹아있다.

스님은 “절 집안 역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수행자들의 생활도 바뀌고 있다”며 “불법은 부처님이 아니면 한 법도 제정할 수 없으며, 수행자들은 따르고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요즘 출가자들이 계율을 소홀히 여겨 배우지 않고 건너편 채 사찰소임을 맡거나 사회사업, 포교사가 되고 싶어 할 뿐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 큰스님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돼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철우 스님은 “율학을 배우거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내가 바라는 것은 계율이 변장해 정법이 오래 머무르는 일에 애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율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계율을 공부해 청정승가를 위해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격려의 말도 전했다.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는 ‘계율’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 주며, 새해를 맞아 우리가 새롭게 지녀야 할 덕목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 | 철우 지음 | 조계종출판사 | 1만원 | 이은정 기자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통을 다 해결하신 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실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 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를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든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념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행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 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 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합장

- 불모 민한식 대표작 ▼
-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x4.84m
- 조계사 덕양정 극락탱화 8.8x2.7m
- 조계사 대웅전 연단탱화 13x2.1m
- 조계사 2만불 조성(신중탱화) 17x15x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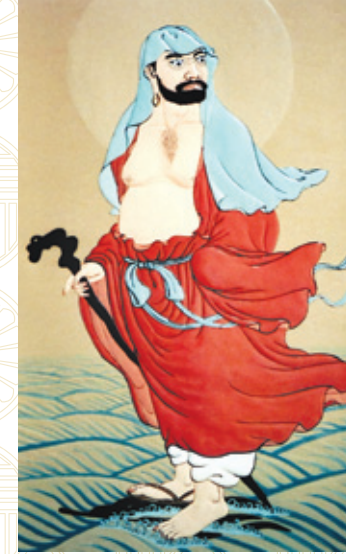
10점 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작품규격 : 28cm x 43.5cm
재질 : 원단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액 : 12만원 (택배비 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84-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한식)



지장보살



달마선사